

중남미 화학산업 정상화 진전...

산업합리화 및 투자유치로 성과 ... 정치·경제적 도전요소 여전

중남미 국가들이 2001년 후반 및 2002년의 충격에서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다.

중남미 경제에 타격을 입힌 첫번째 사건은 아르헨티나의 디폴트선언으로 수개월간 국가경제가 마비되고 석유화학 무역을 강타한 것이었고, 두번째는 브라질의 2002년 선거가 40년만에 좌파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환율이 평가절하되고 경제가 악화된 것이다.

중남미 경제의 침체는 석유화학산업에 확연히 나타나 수출입 흐름이 영향을 받고 주요 시장에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졌다. 또 아르헨티나 수출을 감축하고 석유화학 프로젝트의 중추인 원료거래 재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석유 생산국이 맞은 또 한번의 중대위기는 2002년 12월16일 베네주엘라에서 시작된 석유노동자 파업으로 원료 공급이 중단되고 PDVSA(Petroleos de Venezuela) 노동자 대부분이 Hugo Chavez의 축출을 위해 파업에 동참함에 따라 베네주엘라의 석유화학산업이 마비됐다.

이에 남미의 석유화학기업들은 안정을 되찾는데 절대적인 우선권을 두고 있으나 2003년에는 베네주엘라 사태로 원료 공급량이 줄고 코스트가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침체기에 있고 미국의 이라크 및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등 도전요소가 많았다.

또 멕시코의 Vicente Fox 대통령이 정치 및 경제를 적절히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새로 선출된 브라질의 Luiz Inacia da Silva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신용을 회복하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지, 아르헨티나 선거 및 베네주엘라의 정치적 불안감 또한 변수로 작용했다.

Nexant/ChemSystems은 2003년 중남미 경제의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높은 나프타 및 가스 가격이 1/4분기 수요증가 및 수익성을 제한하고 있고 멕시코, 중미 및 카리브 연안 국가들은 회복이 순조롭지 않은 미국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천연가스 가격이 100만BTU당 8달러를 기록했을 때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감축해야 했다.

중남미는 2003년에도 3가지의 펀더멘털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다. 하나는 원료 코스트의 상승으로 높은 나프타 및 천연가스 가격은 각각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급상승하는 원료코스트를 수요기업에 전가시키지 못함에 따라 수익성이 영향을 받고 있다.

다른 2가지는 국가경제의 회복 및 환율안정인데 에너지가격이 치솟고 있는 때에 Real(레알) 및 Peso(페소) 가치가 하락하면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배가 된다.

<Chemical Journal 2003/05/23>